

아우의 印象畵

붉은 니마에 싸늘한 달이 서리어
아우의 얼굴은 슬픈 그림이다.

발거름을 멈추어
살그머니 애딘 손을 잡으며
『너는 자라 무엇이 되려니』
『사람이 되지』
아우의 설혼 전정코 설혼 對答이다.

슬며—시 잡엇든 손을 노코
아우의 얼굴을 다시 드러다 본다.

싸늘한 달이 붉은 니마에 저저,
아우의 얼굴은 슬픈 그림이다.

『朝鮮日報』 1938. 10. 17.

아우의 인상화

붉은 이마에 싸늘한 달이 서리어
아우의 얼굴은 슬픈 그림이다.

발걸음을 멈추어
살그머니 애뎌 손을 잡으며
「너는 자라 무엇이 되려니」
「사람이 되지」
아우의 설운 진정코 설운 대답이다.

슬며—시 잡았던 손을 놓고
아우의 얼굴을 다시 들여다본다.

싸늘한 달이 붉은 이마에 젖어
아우의 얼굴은 슬픈 그림이다.

1938. 10. 17.